

후백제 역사 복원 '밀그림 그리기'

전주시, 11월까지 역사문화 재조명 수립 용역 추진 내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 종합 복원 로드맵 마련

전주시가 역사 속에서 잊혀진 후백제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밀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후삼국 중 가장 강성했던 후백제 역사문화가 복원되면, 시가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주 원도심 100만평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게 재생하는 '전주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5개월 동안 원도심 곳곳에 산재된 후백제 관련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오는 2018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할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도시 곳곳에 분포한 후백제 관련 유적들을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후백제 관련 문헌자료 및 후백제 문화유산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업 발굴, 소요예산, 추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후백제(900~937)라는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문화도시로서의 전주의 위상을 확립하고, 후백제 역사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도 담을 예정

이다.

전주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약 10년간 후백제 역사 재조명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주시는 이번 용역에 앞서 도시 전역에 산재된 후백제 유적을 찾기 위해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해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후백제 궁성과 도성의 성벽 등 31곳의 유적을 새롭게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 유적 중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하물리탐사를 실시해 지하에 매장돼 있을 유적의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후백제 역사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후백제 역사문화 다음마당을 구성했으며, 후백제 복원에 대한 단편적인 계획이 아닌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다음마당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화성 전통문화유산과장은 "그간 실시된 정밀지표조사는 전주시 관내에 후백제 유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는 지하물리탐사를 통해 구체적인 유적 유무를 확인하고, 후백제 역사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체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자복 입은 김기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환자복을 입고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2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26일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됐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211억원 부과

전주시는 자동차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액 총 19만 8,814건, 211억(완산 110억, 덕진 101억)이다.

지방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월에 합산해 한 번에 고지된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은행에 설치돼 있는 자동입출금기, 위텍스나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텍스' 앱 모바일 납부,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계좌이체, 동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 방문납부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덕진구, 새내기 직원 멘토링제 운영

전주시 덕진구가 소통과 공감을 통해 살아 숨쉬는 조직 문화 활성화를 위한 새내기 직원 멘토링제를 운영한다.

지난 9일 덕진구는 각 직렬별 팀장급 공무원 9명과 임용된지 1년 미만인 새내기 공무원 1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덕진구 새내기 직원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멘토링 결연식은 선·후배 공무원들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조직 적응을 도와 함께 성장하는 공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덕진구는 이날 멘토링 결연식을 시작으로 향후 월 1회씩 정기적인 멘토와 멘티 만남의 날을 갖고 업무 노하우 전수는 물론 일상적인 애로사항 상담 등 자율적인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전주시,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 지속 추진

시민 대상 금연 홍보 확대

전주시가 다양한 금연 정책을 통해 담배연기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흡연과 간접흡연 등 담배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옥마을 및 공공시설·버스정류장 등 주요 금연 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금연클리닉과 생애 주기별 흡연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연 지원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미취학 아동과 학령기 학생,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도와요”

전주시, 2차 검정고시 대비 '스마트교실' 운영

전주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를 돕기 위해 검정고시에 대비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오는 8월로 예정된 '2017년 2차 검정고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주간 학업복귀 프로그램인 '스마트교실'을 운영한다.

전주시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스마트교실에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초학습지도와 검정고시 과목을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스마트교실은 인터넷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며,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은 전북대·전주대 사범대학(원)생들이 멘토로 학습을 지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공부를 돕는다.

또한 청소년들의 학습 능력에 따라 학습지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과 청소년들의 육구를 반영해 필요시 1:1 맞춤형 학습지도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2017년도 1차 스마트교실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 전원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스마트교실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또는 전화(063-227-1005)로 신청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새정부 일자리정책, 대응책은?

도, 일자리창출 간담회 개최

전북도가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새정부의 일자리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및 대학교수, 연구원 등 각 분야별 일자리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일자리창출 대응전략 및 전북형 일자리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새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국가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6월 1일 취임이후 100일 동안 선제적으로 추진할 일자리 100일 플랜 13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도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1차적으로 도내 일자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일자리정책 추진상황 및 100일 플랜 13개 과제의 세부내용에 대한 공유를 통해 정부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도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6월중에 청년, 사회적경제, 취약계층 일자리 등 각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9회)를 통해 새 정부 일자리정책 대응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한, 6월 13일에는 '신정부 일자리정책과 도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6월 22일부터 이틀간 '도내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시군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를 토대로 7월 중에 새 정부 일자리 정책 대응 일자리 발굴방안 협업토론회를 개최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전북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자리창출'이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기조로 설정된 만큼 향후 5년 동안 모든 정책이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날 것에 주목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전북도의 우수한 농생명 R&D 기반을 활용한 청년창업농 육성,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사회적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실정에 청년 취업을 연계시키는 방안 등 지역의 강점을 살리면서, 약점은 보완하는 방안의 시책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지원규모가 늘어나고 지자체의 자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사업발굴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집성 기자

국재솔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